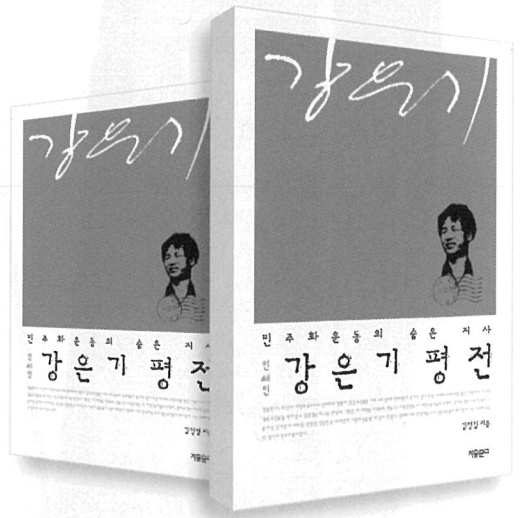


인쇄인 강은기 평전 출간!

민주화운동 숨은 지사의 파란만장한 삶

‘인쇄인 강은기 평전’은 인쇄인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로 살다 간 강은기의 삶과 사상을 엮은 책이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서슬 퍼런 시절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문과 화보집, 소식지 등을 도맡아 인쇄했던 인쇄인 강은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았다.

저자 | 김영일 출판사 | 자유문고 정리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혁혁한 위업을 사랑하는 인물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평생 대의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강은기 선생이 그런 사람 중 하나다.

1942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그는 1964년부터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인쇄공으로 일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출범하던 1972년 세진인쇄를 설립했다. 그때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문, 광주항쟁 화보집, 재야단체 기관지와 소식지 등을 도맡아 작업했다. 그 이후로 줄곧 이 땅

의 민주화의 역사적 사명과 직업으로서의 인쇄 일을 양손에 쥐고 살았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은 “언론의 입이 닫혀 있던 그때 세진인쇄는 ‘민주화운동의 펜’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1960년 4·19혁명의 대열에 합류하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절망해 2년 여간 입산 출가하기도 했던 강은기는 진보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사회구원 없이 개인구원 없다’는 현실 참여의 의식으로 인쇄 일을 해나갔다. 당시 뜻 있는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나설 때 뒤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한 숨은 공로자다.

강은기는 불굴의 지사적인 결기로 수많은 민주화 관련 사건의 인쇄물을 도맡아 제작했다. 민주주의와 인권회복, 정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1972년말 전남대 ‘합성’지 제작을 시작으로 1973년 4월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와 박형규 목사 구속사건’으로 알려진 ‘기독인 신앙선언문’을 인쇄한 뒤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뿌려졌던 성명서나 선언문의 거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통해 나누지게 됐다. 민주화의 P를 끊임없이 제공했던 강은기는 1973년 긴급조치 1호로 구금된 이



▲인쇄인 강은기 생전 모습



▲월간 프린팅코리아 2003년 1월호에 게재된 故강은기기사장 영결식

후 수사기관의 연행 조사, 구금, 투옥, 고문 등 가난과 고난을 걸치고 살았다. 그는 가장 많은 사건에 관련돼 있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연행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중 가장 긴 고초는 유신 체제의 연구화를 저지하기 위해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의 사형선고 후 ‘김재규 항소이우서’를 인쇄한 일로 1980년 3월 31일 연행,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1년 1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겪었다.

또한 군부독재 시절에 민주화 동지들에게 보낸 ‘송군영민(送軍迎民)’ 연하장은 전두환 군부독재의 소멸과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식한 놈’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세속의 명리를 탐하지 않고 강자에 굴하지 않았으며 약자를 섬겼다. 민주화운동에 몸 바치면서 그에게 빛진 동지들의 '외상장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향기로운 거름으로 묻혔다.

강은기는 채식암으로 투병하다가 2002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월간 프린팅코리아 2003년 1월호 참조>

저자 김영일은 강은기와 함께 전북민주동우회 활동을 해 온 시인으로, 강은기가 투병중인 2002년 병상에서 구술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가, 최근 주변인물 인터뷰 등을 보태 전기 형식으로 평전을 엮었다. 총 31편으로 된 본문은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인쇄공으로 발을 디딘 청년 시절, 그리고 출가와 환속, 진보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쇄업과 민주화운동을 구체화시켜 나간 활동들을 중심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대 순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강은기에 대한 추모 글과 강은기가 제작한 인쇄물의 사건 목록과 내용, 일기,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등을 수록했다.

“나의 첫 번째 책 ‘해방의 길목에서’를 내던 때 (1974년)가 생각납니다. 출판사에서 원고가 압수되고, 아무도 인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강은기 사장이 구속될 각오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앞세운 용감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기 바랍니다”

박형규(목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아! 강은기 님. 그분은 어수선한 울지로 인쇄소 골목, 그 좁디좁은 공간에서 감히 천하

의 독재자와 맞섰던 ‘불온문서’ 아지트의 전사였다. 그의 헌신과 수난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것이다. 광기에 휘둘리는 이 땅을 민주세상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특이한 ‘역할 분담’을 자임했던 선생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모든 언론이 독재에 침묵하고 재야단체의 유인물이 유일한 진실의 전달 창구였던 시절이 유인물을 인쇄하는 일은 작은 것 같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은기 사장의 인쇄 일은 민주화의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묵묵하게 일하시던 강 사장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임채정(전 국회의장)

“강은기 선생은 험난한 민주화운동 과정에 힘을 불어넣어 준 숨은 일꾼입니다. 70~80년대 재야 운동 시절, 그는 내가 부탁하는 인쇄물들을 때로는 감옥 갈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책으로 그의 삶의 족적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손학규(전 경기도지사)

“강은기 선생님은 민주화운동에 얼굴 없는 운동가였습니다. 독재정권의 발아래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선생께서 찍어낸 유인물 한 장 한 장은 민주주의에 목말랐던 국민들에게 희망의 단비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고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고인의 평전 출간으로 우리 민주주의 운동사가 한층 풍성해지고 국민들에게는 감동과 교훈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해찬(국회의원, 전 국무총리)

“강은기 사장님은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누구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해내신 강단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근태 의장 구속 때는 저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때로 농담으로 웃게 하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 소박하고 인자한 분이 우리와 더 오래 같이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마음 아픕니다”

인재근(국회의원, 고 김근태 의원 미망인)☞

